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명제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물결 속에 휩쓸리고 말 것인가.
1994년의 불교개혁,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나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은 많다. 구습은 여

전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느냐다. 무조건적인 변화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찾는 일이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바뀌어야 할까? 설문을 통해 오늘의 자화상을 그려봤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계율, 잘 지키지만 ‘변화’도 필요하다

● 설문조사 취지 및 의미

올해는 불교 개혁 10주년이자 현대불교 창간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대불교 10년에는 불교 변화의 파노라마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그동안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불교가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대불교는 한국불교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신년특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방향은 계율, 불교 이미지, 발전방향 등 크게 세 가지다.
계율은 승·재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계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승·재가는 물론 불교 전체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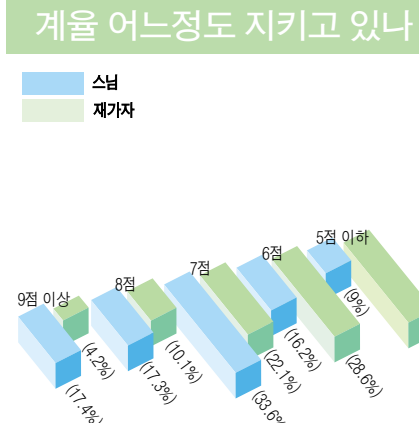
스님·타종교인·비불교도 711명 응답
50대 가장 많고 남 53%, 여 46.9% 비율

본지, 독자대상 문제점 등 설문조사

상할 가능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 그대로를 파악하고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한 것도 이번 설문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핵심이다.
설문은 현대불교신도 독자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불교인과 비불교인의 시각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 스님과 재가불자 외에 다른 종교 성직자와 일반인(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설문 방식은 우편과 이메일 설문을 병행했으며, 모두 1만부를 발송해 711부를 회수했다. 응답자 신분별로는 스님 200명, 다른 종교 성직자 15명, 불교신도 327명, 일반인(타종교인 및 무종교인) 167명이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7명(27.7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7명(26.31%)~60대 이상 130명(18.28%)~30대 97명(13.64%)~20대 90명(12.66%)~10대 10명(1.40%) 순이었다. 10대와 다른 종교 성직자는 표본수가 적어 연령별, 신분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성별은 남자 377명(53.02%), 여자 334명(46.98%)으로 비슷했다.
한명우 · 권형진 · 김철우 · 김은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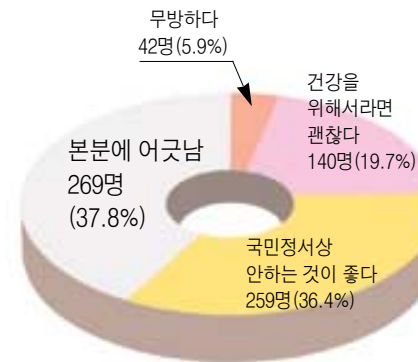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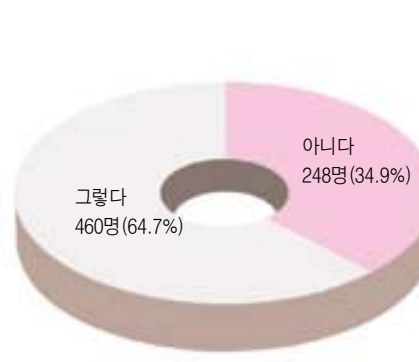
10점 기준...스님 7점 33.6% 가장 많아 재가자 5점 이하 29.0%나...잘 안지켜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점수(10점 만점)를 준다면?
승가의 경우는 '7점 이하'를 제외한 '7점 이상'을 준다는 '아니다'가 33.6%로 가장 많았고, 9점 이상(잘 지키고 있다) 17.4%~8점 미만 17.3%~6점 미만 16.2%~5점 이하 16.2%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스님들 스스로가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5~6점을 준 스님이 33.5%나 됐다. 불자와 일반인의 20~25%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치다.
불교신도에 대한 계율 점수는 5점이 하가 28.9%로 가장 많았고, 6점 28.6%~7점 22.1%~8점 10.1%~9점 이상 4.2% 순이었다. 부정적 시각(5~6점)이 57.4%로, 긍정적 시각(8~9점 이상) 14.3%보다 훨씬 높았다.



스님 33.5%(200명중 67명) “경험 있다” “어느정도 괜찮다” 60%가 관대한 견해

스님 응답자 200명 가운데 출가 이후 육식, 음주,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8명(9%)에 불과했다.
'육식과 음주를 해봤다'는 응답이 67명(33.5%)로 가장 많았고, '세 가지 모두 다 해봤다'는 응답자도 42명(21%)이나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식을 해봤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흡연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음주와 육식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어떨까. 전체 711명의 응답자 가운데 232명(32.6%)만이 '둘 다 본분에 어긋난다'고 답했을 뿐, '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 30.2%, '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 30.0%를 합쳐 60% 넘는 응답자가 최소한 육식은 허용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인보다는 스님과 불교신도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며, 음주는 괜찮다고 한 응답은 7% 정도에 불과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계율 바꿔야 하나 “시대 따라 변해야” 64.7% 차지 스님 61.5%, 불자들 62.1%가 긍정적

계율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7%로, 아니라는 응답 34.9%에 비해 20% 가량 높았다. 이같은 시각은 일반인(72.5%)은 물론 스님(61.5%)과 불교신도(62.1%) 사이에서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이한 만한 것은 이 질문을 설문 1번 문항에 배치해 음주나 육식 등과 관련한 다른 문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계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사이에, 계율에 대해 고전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 정도로 높았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7%정도 많게 변화를 요구했다.

무방하다 42명(5.9%)
건강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140명(19.7%)
국민정서상 안하는 것이 좋다 259명(36.4%)
본분에 어긋남 269명(37.8%)
둘 다 무방 34명(4.8%)

승용차 소유에 대해서는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 (42.6%)는 답변이 가장 높은 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소형 승용차나 사할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4%가량이었다. 스님들의 활동에 승용차가 필수항목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시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를 신분별로 비교하면 스님(55.5%)보다 일반인(36.5%)이 훨씬 적었다.
그러나 골프와 스키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분에 어긋남'은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국민정서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36.4%에 이르는 등 부정적 인식이 74%를 넘었다. 이같은 부정적 시각은 스님이 가장 높았다. 스님들 스스로가 출가자가 즐기기에 적절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무방하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한마디 말”로 트생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박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전생명의연구원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치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기법과 빙의치리기법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르셀 수행인정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현,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제체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윤회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불로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읍할 따름입니다. 한국전생명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내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친도하는 것은 물론 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경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를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전생명의연구원의 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 0 사 0 0 합장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최면 이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의식, 시술패턴,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용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 2. 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소재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 3. 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 4. 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 5. 영가천도 실기 : 영가천도 실기,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중재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 6.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제공한다.
- 7. 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강화와 최면치유인식에 의해 심신질환의 치유역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천운빌딩 2층 천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희망한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명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교육기간] 1차 : 1월 7일(수) 오후 12:30 ~ 오후 9:00까지
2차 : 1월 8일(목) 오전 10:00 ~ 오후 8:00까지
3차 : 1월 12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4차 : 1월 19일(일)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접수 후 입금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유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대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부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원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정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